

“문틈 사이로”...가게 앞 흡연에 시민 고통 호소

연기·이물질 무단투기에 업주 체념 재떨이·별도 흡연공간 설치 어려워 “실외기 화재·빗물받이 막힘 우려” 공공 흡연부스 설치...지자체 ‘난색’

여름철 광주 시내 식당가에서 일부 흡연자들의 부분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 공공 흡연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광주 대표 식당가로 꼽히는 동구 동명동 일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놓은 가게 앞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부 흡연자들은 궂초와 담뱃갑 등 쓰레기를 거리와 하수구 등에 투기하거나 흡연 도중에도 거리에 여러 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

담배 연기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자, 보행자들은 코를 막으며 피해 지나갔고 가게 안의 손님들은 옥내로 들어오는 담배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며 창문을 닫았다.

이렇듯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은 광주 시내 식당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수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광주 금연구역 대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집중돼 있고 단속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6일 오후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가게에 흡연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실제 2023년도 광주 지역 금연구역 흡연금지 위반 중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180건이었고 기타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지도 2건, 과태료 16건에 불과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한 금연구역도 횡단보도 인근 5m 등 노상의 일부에 그치고 이마저도 자치구마다 기준이 상이해 가게 앞 등 길거리 흡연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억제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업주 입장에서 가게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게 밖에 별도의 재떨이나 분리된 흡연공간을 조성하기도 어렵다.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음식점 등의 옥외 시설물도 공중이용시설의 영업장으로 분류돼 금연구역에 포함되며 흡연시설이 아닌 곳에 재떨이를 놔둬 흡연을 유



지난 6일 오후 10시께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가게 앞에 담배꽂초와 쓰레기 등이 널부러져 있는 가운데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도해서는 안 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야외 흡연실은 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지만 허가 절차 등이 까다롭고 공유도로를 점거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가게 앞 흡연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동명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24)씨는 “문틈 사이로 담배 연기가 들어와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님들의 불편이 크다”며 “궂초 등 이물질을 버리는 경우도 잦아 청결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게 입구와 창문에 금연구역 안내문과 팻말을 부착하고 흡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해봤지만, 일시적인 방편일 뿐 가게 앞 흡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길거리 흡연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당가 인근 주민과 이용객들은 담배 연기와 궂초 투기 등으로 인한 불쾌함과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규현(26)씨는 “창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 연기와 음식 냄새가 섞여 식사 중 불쾌했던 적이 많다. 가게 앞에 떨어진 담배 궂초와 가래침을 밟는 경우도 많아 찝찝하다”며 “궂초 무단투기는 실외기 화재와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역류현상 등의 원인이 돼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부 시민들은 변화가 인근에 흡연 부

스를 설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명을 요구한 한 흡연자는 “대부분 건물에는 별도의 흡연구역이 마련돼 있지 않아 흡연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실정”이라며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자체에서 변화가 인근 공공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편의를 고려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는 흡연부스 설치에 난색을 보이면서 금연구역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날씨가 더워지며 흡연 관련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민원 접수 시 자치구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나가 궂초·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만 인원 부족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변화가 흡연부스 설치 사례는 없다. 건물 시설 주 등이 허가를 통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금연구역이 국가 시책이다 보니 시에서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금연구역을 활성화해 지역 사회 금연구역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세 이상 흡연율은 광주 18.4%, 전남은 19.4%로 전국 평균인 1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사회 정화’ 미명 삼청교육 피해자들, 국가 대상 손해 승소

1980년 비상계엄 포고 13호 불법 연행 등 인권 침해 인정

1980년대 신군부 정권 당시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삼청교육대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시민들과 그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신군부 계엄포고에 따른 삼청교육 피해자 A씨와 B씨의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위자료 9634만4348원을, B씨가 받아야 할 위자료의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아들에게는 각각 5400만원과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980년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계엄포고 13호에 따라 영장 발부 없이 6만여 명을 검거, 이 중 4만여명을 전국 26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당시 A씨는 광주에서 경찰에 불법 연

행돼 1980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02일간 육군 31사단·2사단에서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척추 협착·탈출 등 크게 다쳐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출소했다.

B씨 역시 비슷한 기간 중 육군 31사단·2사단, 동해사령부 등지를 돌며 삼청교육을 받았고 허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지난해 6월 숨졌고 B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B씨를 대신해 이번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계엄 포고의 발

령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검거, 분류 심사, 순화 교육, 근로 봉사, 보호감호 등으로 현실화됐다. 국가가 계엄포고에 따라 A씨와 B씨를 불법 체포·구금한 뒤 구타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면서 실시한 이른바 ‘삼청 교육’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B씨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강제로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함으로써 상당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삼청교육대에 다녀온 전력으로 인해 이후 사회생활,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액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

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삼청교육 피해자 C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국가가 C씨 등 8명에게 각기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C씨 등이 18세 또는 19세에 국가기관에 의해 한 달여 간 불법 구금됐고 강제 순화교육을 받아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 등에 의한 조직·의도적으로 중대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지기자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7월 5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200,000,000원 중 금1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금100,000,000원으로 하고, 발행 주식총수 20,000주를 10,000주로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로 균등하게 유상소각하여 1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 일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8일
주식회사 원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로4로 487(동천동)
대표이사 이 권 세

합 병 공 고

㈜우리정보기술은 서기 2024년 7월 5일 주주 총회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회사합병에 관하여 ㈜유유브가 존속하며, (주)우리정보기술이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고, 합병일일은 2024년 8월 9일이며, 합병비율은 무증자 합병으로 ㈜유유브 : (주)우리정보기술 = 1 : 0이며, 본 합병에 따라 ㈜유유브는 ㈜우리정보기술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8일

1. 이의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천단과기로 208번길 43-10 IBC지식산업센터 B325호 ㈜우리정보기술

주식회사 우리정보기술
대표이사 구 용 권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선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광주 지방법원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128
(2020고단6287) 사기미수등
피고인 오태경

위 피고인은 사기미수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 7. 2.
판사 김지연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티켓마루

콘서트 뮤지컬 연극
티켓에매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